

SIMPAC STORY

2022. VOL. 54



서로의 성장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
협력

SIMPAC STORY

2022. VOL. 54

서로의 성장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

협력

통권 54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2년 11월 11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4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차창열 차장 02-3780-4943 cncha@simpac.com
이도영 대리 02-3780-4923 dylee@simpac.com
이현아 사원 02-3780-4974 halee@simpac.com

㈜SIMPAC 프레스BU
권성안 매니저 032-510-0025 sakwon@simpac.com
남윤기 매니저 032-510-0024 yknam@simpac.com

㈜SIMPAC 메탈BU
조술범 매니저 054-271-8725 sbcho@simpac.com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최한나 매니저 032-590-8905 hnchoi@simpac.com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정기환 팀장 054-271-8721 ghjung@simpac.com
김종철 매니저 054-271-8931 jckim@simpac.com

㈜리스텍비즈
김영철 팀장 061-797-2012 yckim@simpac.com
박지윤 사원 061-797-2011 jyunpark@simpac.com

㈜SIMPAC홀딩스 ENG BU
이종서 팀장 032-590-2024 jslee@simpac.com
박기원 과장 032-590-2025 gwpark@simpac.com

함께 만드는 가치



04-11

Focus On

합금철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준 기술력
지금까지 SIMPAC 메탈BU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가치와 경쟁력을 심층 소개

12-13

리더스 Talk

도전과 성장,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SIMPAC 메탈BU의 DNA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
박종환 상무



14-17

주니어보드

우리 소통할까요?

18-21

SIMPAC News

앞서 나가는 심팩



22-27

현장 속으로

공정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무파쇄 주조기가 안착하다!
페로실리콘BU의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도전과 목표



28-33

심팩 인사이드

역대급 태풍에도 굳건했던 SIMPAC
비상 대처 능력이 빛났던 순간
SIMPAC 메탈BU 포항
태풍 피해복구 현장에 대해 들어보다

34-37

히든 피겨스

새로운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다
모두와 함께 외친 유레카!
리스텍비즈의 제품 다변화 노력

38-41

탐방 리포트

SIMPAC 프레스와 더불어 성장하는
정진멀티테크놀로지
SIMPAC 프레스BU 고객사,
정진멀티테크놀로지 탐방

변화하는 우리



42-45

스페셜 기획 인터뷰

SIMPAC의 희망찬 미래,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으로 열어갑니다!
2022년도 SIMPAC그룹 신규 입사자 사외 집체교육



46-49

슬기로운 직장생활

성과와 만족을 좌우하는 직장 내 인간관계
SIMPAC인들의 업무효율화와 긍정적인 조직생활의
가이드 제시를 위한 큐레이션

50-55

심팩 Talk Talk

건강한 조직문화의 시작, '소통'

56-57

SIMPAC STARGRAM

협력스타그램

협력을 주제로 SIMPAC인들의 일상을 공유

58

우리들의 이야기



HOME



METAL BU



PRODUCTS



INTERVIEW



LEADER



꾸준한 기술 개발과 현장의 오랜 노하우로 이뤄낸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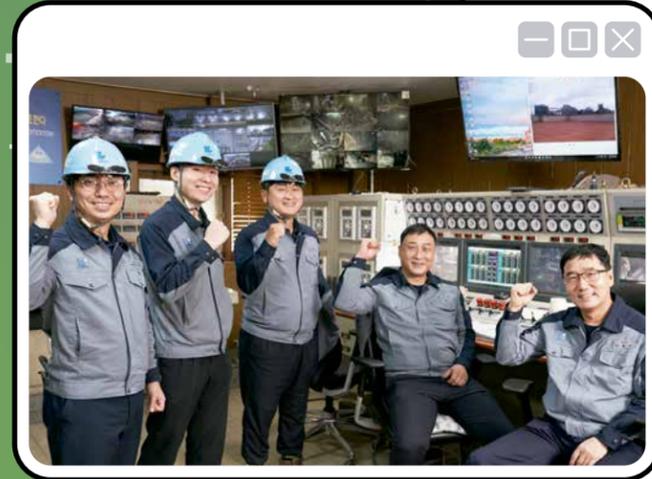
국내 Top-tier 합금철 메이커

SIMPAC 메탈BU는 페로망간, 실리콘망간 등의 고품질 합금철 생산으로 글로벌 합금철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고품질 합금철은 지금까지 SIMPAC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포항1공장의 핵심제품인 페로망간과 실리콘망간이 대표적인 예다. 망간은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주요 금속 합금재료로서, 철강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온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SIMPAC은 망간을 포함한 기존의 합금철 분야에서의 기술력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넓은 스펙트럼의 제품으로 고객사의 니즈를 맞춰가고 있다. 특히 포항1공장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망간철을 58,000톤 납품하는 데 이어 페로니켈크롬을 13,000톤 납품했다.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기술로 승부하다

합금철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켜준 기술력

SIMPAC은 국내 최초의 합금철 제조회사로서 오랜 업력동안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된 순간에도 오히려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왼쪽부터 오른쪽) SIMPAC 메탈BU 생산팀 박용찬 팀장, 이상인 매니저, 손웅익 매니저, SIMPAC 메탈BU 전기로 A조 이동지 주임, 이형원 반장

SIMPAC은 유가금속 리사이클로 페로니켈크롬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유가금속 리사이클에서 전체 시장의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가금속 리사이클은 연간 수십만 톤에 이르는 제철·제강 공정에서 나오는 분진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임가공 조업은 망간 조업보다 원료 조건도 좋지 않고, 전력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며 폭발위험도 있기에 경제력이 떨어지는 기술로 평가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SIMPAC 메탈BU는 1995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고객사와 가까이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임가공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그 성과를 내고 있다. 생산팀 손웅익 매니저는 “매립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화하여 제품 비용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술”이라며 유가금속 리사이클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매립된 유가금속을 리사이클 한 가치는 매립 비용의 3~4배가 넘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리사이클을 통해 만들어낸 니켈은 시장에서 고가로 취급되는 금속입니다.





HOME



METAL BU



PRODUCTS



INTERVIEW



LEADER

들쭉날쭉한 업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OPEN

합금철의 업황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임가공 제품인 페로니켈크롬은 꾸준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이처럼 분진을 리사이클하여 자원화하는 기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높은 고객만족도 실현

작년과 올해 상반기 페로망간과 실리콘망간의 업황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업황이 꺾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꽤 지속될 예정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주제품인 합금철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타 기업은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SIMPAC 메탈BU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생산팀 이상인 매니저는 “임가공 제품은 업황이 들쭉날쭉한 합금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되어준다”라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합금철은 업황이 10년 주기로 사이클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합금철 업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임가공 제품은 꾸준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어 점차 높아지는 환경에 관한 관심으로 인해 철강업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전력 소비 등에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버려지는 분진으로부터 유가 금속을 자원화하는 기술은 친환경적인 기술로 여겨지며 ESG 경영에 관심을 두고 있는 SIMPAC은 물론 고객사 역시도 긍정적으로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기에 SIMPAC 메탈BU는 앞으로 경제성이 갖춰지는 대로 리사이클로 환원하는 유가 금속 제품을 늘려가며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팀 박용찬 팀장은 이에 관한 실제 사례를 덧붙였다.



현재 SIMPAC 메탈BU에서는 또 다른 리사이클 사업을 계속해서 고객사에 제안하고, 추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앞으로 경제성만 갖춰진다면 더 많은 사업을 제안해 고객사와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상승하는 전력 단가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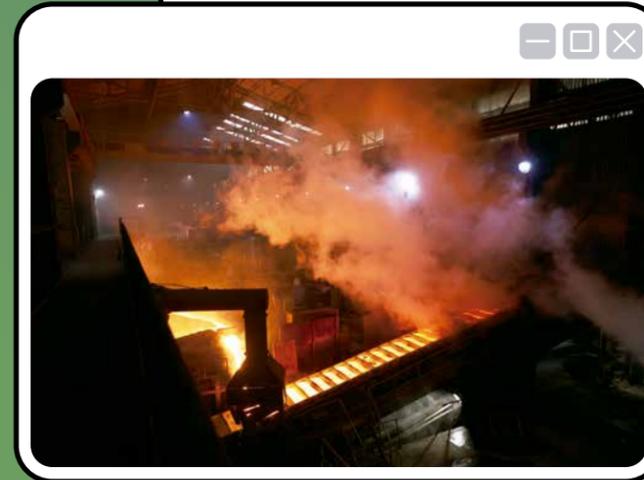
NEXT

2022년 10월 1일부터 상승한 전력 단가에 대처하기 위해 SIMPAC 메탈BU에서는 사용 전력 절감 방법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전력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력 원가 절감

경제성을 갖췄다 해도 유가금속 리사이클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점차 오르고 있는 전력 단가가 걱정이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전력 단가가 일부 올랐으며, 내년에도 분기마다 전력 단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SIMPAC 메탈BU에서도 사용 전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SIMPAC 메탈BU는 페로니켈크롬 조업에 있어서 전력 원가를 상당히 낮춘 경험이 있다. 올해 조업을 시작하면서 수분이 많지 않도록 원료를 관리한 덕분이다. 여기에 더해 원료를 야적할 창고가 완성되고 나서는 장마철 등에도 수분을 제어할 수 있어 사용 전력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 작업에 있어서도 사용 전력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다. 이동지 주임은 “현장에서 이러한 변동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



각각 다른 원료의 상태에 맞춰 조업 패턴을 달리하고, 전력 단가에 맞춰 작업 표준을 수정하며 최적의 작업 방식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적절한 로내 원료면 높이 조절을 통해 사용 전력을 낮출 수 있었죠.





주요 제품

고품질 합금철 생산으로 글로벌 합금철 메이커로 성장하다

SIMPAC은 국내 최초의 합금철 제조회사로 오랜 업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뿐만 아니라 고품질 합금철을 생산하고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뿐만 아니라 포항, 당진공장의 효율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왔다. SIMPAC의 주요 생산품은 페로망간 (Ferro-Manganese)과 실리콘망간(Silicone-Manganese), 페로니켈크롬(Ferro-Nickel Chrome) 등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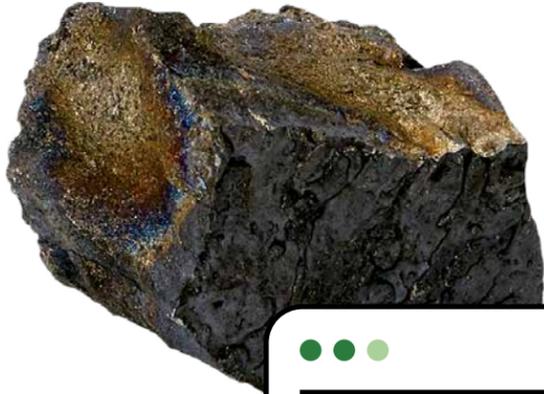


SIMPAC METAL BU

HC FeMn

고탄소 페로망간

- 탈산, 탈황제
- 일반 판재류 제조시 성질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금철
- 주요고객사: 포스코, 현대제철 등



SIMPAC METAL BU

SiMn

실리콘망간

- 탈산, 탈황제
- 스텐레스강, 형강 및 철근 등 건축용 강재 생산시 사용
- 실리콘 및 망간성분 첨가
- 주요고객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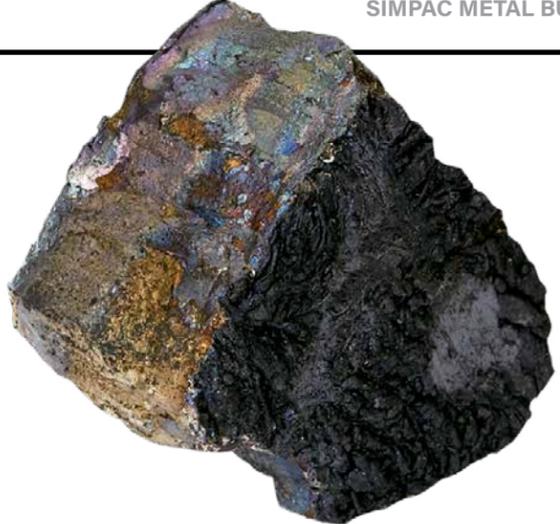



SIMPAC METAL BU

MC/LC FeMn

중저탄소 페로망간

- 탈산, 탈황제
- 자동차용 고급판재를 생산공정에 사용
- 망간성분 첨가
- 주요고객사: 현대제철 등



SIMPAC METAL BU

FeNiCr

페로니켈크롬

- POSCO STS제강 NiCr원료로 공급
- 스텐레스강 생산시 사용 (304/304L 열연 및 냉연제품, 304LN 후판제품)
- 주요고객사: 포스코




SIMPAC METAL BU

젊고, 밝고, 활기찬 조직문화로 꾸준한 혁신을 만들어내다



SIMPAC 메탈BU는 철강업계의 고루한 조직문화를 자발적으로 바꿔나가며 소통하고, 협력했다. 그 결과 꾸준한 혁신은 절로 따라왔다.

활기찬 조직문화

꾸준한 혁신이 기업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전반적인 조직문화의 변화였다. 기존에는 철강업계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상명하복 문화가 SIMPAC 메탈BU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또한 정식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느라 소통이 차순위로 밀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SIMPAC 메탈BU는 젊고, 밝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따라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통하면서 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 부서 간 교류와 협력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진 것도 이 덕분이었다.

전기로A조 이동지 주임은 이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야간 작업 시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전기나 설계 담당자와 소통이 원활해졌고,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부서 간 협업의 장점을 언급했고, 전기로A조 이형원 반장 역시도 "현장에서는 늘 수동적으로만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분위기가 많이 변화했습니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이에 생산팀 박용찬 팀장은 "물론 신입사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진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주임님이나 반장님이 술선수범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도 뚝뚝 뭉쳐 한번 해보자는 의욕적인 분위기에서 모두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현장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MINI INTERVIEW



딱딱하고, 권위적인 작업 분위기 대신, 수평적이고 온화한 작업 분위기가 갖춰지면서 직원 간 의사소통은 더욱 속도가 빨라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국내 최저의 원가로 최고 품질의 합금철을 생산해내겠다는 다짐은 SIMPAC 메탈BU의 목표이자 직원 모두의 목표가 되었다.

SIMPAC 메탈BU 생산팀 이상인 매니저

첫 회사로 SIMPAC 메탈BU에 입사하게 된 만큼 앞으로 꾸준히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임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히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열역학적인 분야를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후 1:15



SIMPAC 메탈BU 생산팀 손용익 매니저

합금철 산업의 역사가 70년 가까이 되었지만, 설비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후 1:24



SIMPAC 메탈BU 생산팀 박용찬 팀장

현재 SIMPAC 전사적으로도, 메탈BU도 큰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시스템과 설계도 개선하여 더 안전하게,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이가 국내 최저의 원가로 최고 품질의 합금철을 생산해내겠습니다.

오후 1:28



SIMPAC 메탈BU 전기로A조 이동지 주임

생산 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교대 때마다 안전 교육에 힘쓰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 1:38



SIMPAC 메탈BU 전기로A조 이형원 반장

저는 정년이 2년 남아있는데요. 현재 신입사원이 많은지라 간혹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남은 동안 안전사고 없이 정년 퇴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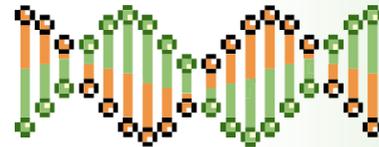


성장 연혁

- 1959 한국전기야금 설립
- 1974 한국합금철공업으로 사명변경
- 1976 KS기술 인증획득
- 1979 포항제1공장 준공
- 1988 한합산업으로 사명변경
- 1991 포항제2공장 (고분자화학) 준공
- 1996 POSCO STS Dust 용해 전기로 신설
- 2006 SIMPAC그룹 계열사로 편입
SIMPAC ANC로 사명 변경
- 2008 코스닥(KOSDAQ) 상장
- 2011 SIMPAC Metal로 명명
SIMPAC ANC에서 SIMPAC Metalloy로 사명변경
- 2016 SIMPAC Metal을 SIMPAC Metalloy로 흡수합병
- 2017 SIMPAC Metalloy에서 SIMPAC Metal로 상호변경
- 2018 SIMPAC Metal을 SIMPAC으로 전략적 통합

- HOME
- METAL BU
- PRODUCTS
- INTERVIEW
- LEADER

도전과 성장,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SIMPAC 메탈BU의 DNA



도전과 성장, 그리고 이를 만들어낸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SIMPAC 메탈BU의 DNA입니다. 작은 합금철 제조사가 지금까지 성장해 나가는 동안 여러 차례 도전하며 쌓아온 자신감이 SIMPAC 메탈BU에 쌓였는데요. 그 자신감으로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을 타계해 나가려 합니다.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

박종환 상무



경기침체 속 유례없는 경영 성과를 이르기까지

SIMPAC 메탈BU는 1959년에는 작은 합금철 제조사로 시작했으나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점차 그 규모를 키워나갔다. 이후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왔다.

3~4년 전부터는 전기차 부품 소재에 필요한 고순도 합금철을 생산하고 있으며 2년 만에 공장을 정상화하여 독자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만들어 이를 전량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고수익 전략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잡은 덕분에 SIMPAC 메탈BU의 외연이 더욱 넓어졌다.

SIMPAC 메탈BU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과 올해 초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유례없는 경영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전략과 전사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이룬 실행이 뒷받침되었기에 이뤄낸 성과였다. 박종환 상무는 “SIMPAC 메탈BU가 가진 자신감의 원천이 이러한 도전과 성장의 경험에서 온다”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다.

“SIMPAC 메탈BU는 우리의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해 도전하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신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는 도전과 성장으로 인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도 두렵지 않은 이유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간 끝에 SIMPAC 메탈BU는 생산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었고, 철강산업의 근간이 되는 합금철은 고급화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부산물 리사이클이라는 독자적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최근 SIMPAC 메탈BU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은 유가금속이 함유된 부산물을 리사이클 하는 사업이다. SIMPAC 메탈BU는 현재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유일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사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저희는 기술 보안으로 선을 긋는 대신 오픈소싱을 통해 고객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보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공개하며 소통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죠.”

이러한 부산물 리사이클을 통해 포항에서는 니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40%의 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Ni, Cr, Zn, Fe 등 철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유가금속이 함유된 부산물 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선제적으로 위기에 맞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 철강 사업의 성숙기에도 차별화된 고급제품과 원가 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안전, 환경, 에너지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여 내부 역량을 키우고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때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된 원년인 동시에 본격적으로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전력 단가가 상승한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동시에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프로세스를 개발하며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외부 요인에 대응하면 다른 기업이 도태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발 더 나갈 수 있기에 임직원 모두가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MES를 구축하여 업무처리 방식의 효율을 높이고, 그룹 내 공장간 또한 유관 업체와의 디지털 클러스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도를 앞둔 SIMPAC 메탈BU에는 도전 의식과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 직원의 역량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개인 업무와 조직의 목표를 연계하여 업무의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이 유효하다. 개인적인 업무영역에서의 세밀한 관찰과 집요한 문제해결만이 회사와 개인 모두를 발전하게 만드는 비결이자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 인식과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는 데 있어서 QSS(Quick Six Sigma) 활동이 그 수단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소통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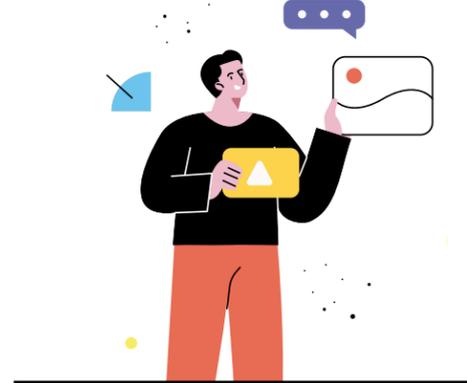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결국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흐르지 않는 물처럼 정체되고 썩을 수밖에 없다. 기업에서 소통은 이제 필수적인 조직문화 그 이상으로 비즈니스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SIMPAC이 주니어보드를 출범한 배경 또한 MZ세대가 이제 그룹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이끄는 주축 세대인 만큼,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SIMPAC 주니어보드 2기의 두 번째 아젠다 '소통'에 대해 각 사를 대표하는 MZ세대의 의견을 들어본다.



SIMPAC이 추구하는 '소통문화'

분위기와 감정은 쉽게 전염된다. 경직된 업무 분위기는 사무실 내 공기를 타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덩달아 무겁게 만든다. 반대로 팀의 성과로 다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에서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조직원은 의견을 내는데 더욱 자유로울 것이다. 조직 분위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마 신입직원일 것이다. SIMPAC은 신입직원의 업무 자신감과 적응력을 심어 주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들어온 지 한 달 된 SIMPAC홀딩스 Lia는 모르는 것을 수시로 물어봐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멘토 덕분에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가장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매니저' 호칭 제도였습니다. 전 직장은 차장, 과장, 대리와 같은 일반적인 직급 체계의 호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회의를 할 때마다 직급이 주는 벽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지금의 SIMPAC과는 상반되는 분위기에요. 호칭을 변화하는 것만으로도 직급이 주는 벽이 허물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고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Thomas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품질지원팀 매니저

주니어보드는 "우리 조직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최근 SIMPAC으로 이직한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Thomas는 처음 입사한 후 전 직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크게 실감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바로 수평적인 호칭 제도였다고 말한다. 최근 SIMPAC은 대부분 계열사에 기존의 직급 대신 호칭을 '매니저'로 통일하는 인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 배경에는 수평적인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장벽을 한층 낮게 만들고 유연한 소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물론 아직은 도입 초기이다 보니 사업 영역과 업무 특성에 따라 부각되는 장단점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내 의견을 수렴하여 각 조직에 맞게 점점 자리를 잡는다면 더욱 단단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열린 소통은 구성원들의 정서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같이 일하는 구성원끼리 정서적으로 더욱 친밀해진다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이어져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를 형성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니어보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 사내 동호회, 사우회 등에 참석해 여가를 보내거나 퇴근 후 소소한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며 끈끈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다. SIMPAC 메탈BU Henry는 얼마 전 사우회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전에는 멀게 느껴졌던 직원과도 친해진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업무도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부연했다. SIMPAC은 직원들의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비슷한 취미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의 장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업무 능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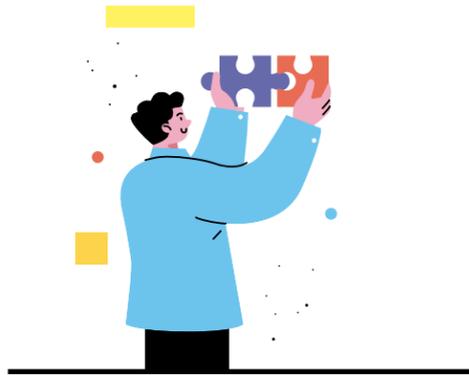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피드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은 혼자만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공유와 상대의 적절한 피드백이 있어야 업무 성과도 좋다. 주니어보드는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또한 "소통 창구만 마련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주니어보드는 실제 업무에서 톱다운(Top-down)방식보다는 현장에서부터 의견이 나와 경영진으로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방식의 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 보니 '나의 의견이 잘 수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욱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반대라면 조직은 점점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다.

SIMPAC 메탈BU Jimmy도 원활한 소통에서 있어 핵심은 피드백이라고 동의하면서 상대의 '경청'과 '스피드'도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경청은 단순히 잘 듣는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열린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경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반응 즉, 피드백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업무 효율을 좌우하기도 한다. 보고의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단계를 생략해야 하는 순간도 오기 마련이다. 특히 SIMPAC 프레스BU Justin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때는 시간이 곧 성과를 좌우한다고 표현하며 피드백의 속도를 강조했다.

주니어보드가 제안하는 서로 '통'하는 열린 창 만들기

어떠한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 이용자의 행태와 업무의 효율, 그리고 조직 문화도 바뀔 수 있다. 최근 SIMPAC은 홀딩스 사옥 15층을 리노베이션하여 워킹 라운지를 조성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배치되어 간단한 업무 협의와 소규모 미팅, 캐주얼한 대화를 나누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주니어보드는 SIMPAC의 소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더욱 많은 현장에 보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내 탁구장, 스크린 골프장과 같은 직원 휴게공간이 마련된다면 서로 친해지는 '친목의 장'이 되면서 동시에 '소통의 장' 역할도 할 것이라는 게 주니어보드의 공통된 생각이다. 마치 '광장'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현상과 같이 말이다.

또한, 주니어보드는 세대 간 소통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며 차이를 좁혀 가는 시간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화의 횟수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밀도 있는 대화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속마음이다. 함께 터놓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급한 이슈가 터지면 각 부서 실무자가 다 달려들어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데, 때로는 실무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윗선에 보고했을 때 조치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사 입장에서 비용적인 손해가 늘어나니까 그야말로 시간 싸움입니다. 또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각 부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일정을 재확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유관 부서에서는 사실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와 소통하며 다진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부감없이 바로 다 해주십니다. '외부' 영업도 중요하지만 '내부' 영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처럼 소통의 노하우는 영업팀의 필수 역량입니다.

저스틴@Justin
SIMPAC 프레스BU 해외영업팀 매니저



저희 팀은 현장의 여러 부서를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직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데도 전혀 들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힘 빠지는 일도 없었니까요. 현장 직원들도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면 일을 하는데 더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헨리@Henry
SIMPAC 메탈BU 포항2공장 매니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교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니어보드가 각 계열사의 2030 젊은 직원을 대변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듯, 이번 기회에 '시니어보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생각에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시니어보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슨@Jason
SIMPAC 메탈BU 경영지원부문 매니저



얼마 전 메탈 사업부는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직원 휴게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오픈라운지 형태의 작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이전에는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 후 각자 자리에서 있거나 탈의실에서 잠시 쉬곤 했습니다. 휴게공간이 생기니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만나면 이야기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늘어나더라고요.

지미@Jimmy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매니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직장 선배 멘토링을 통해 선배 동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초년생도 비슷하겠지만 처음에는 서툴러서 종종 실수하기도 하고, 업무에서도 어려운 순간을 자주 맞닥뜨리거든요. 그럴 때 저의 사수 선배님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다'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어요. 먼저 다가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업무에서 제 의견을 지속적으로 물어봐 주십니다. 제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때면 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이 강하게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아@Lia
SIMPAC 홀딩스 경영지원실 사원



2022.06 - 2022.10

SIMPAC NEWS



SIMPAC 메탈BU, 페로실리콘BU 팀장·중간관리자 워크샵

2022.09.23

SIMPAC 메탈BU, 페로실리콘BU사업부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의 교육과정으로 팀장 및 중간관리자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메탈BU, 페로실리콘BU사업부 팀장 및 중간계층 관리자 역량 강화와 “소통하는 리더들의 말하기”라는 강의를 듣고 동기부여 및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성과를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의에서 주된 주제는 리더의 역할과 책임,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법, 피드백의 중요성, 성향에 따른 맞춤형 소통법 등의 과정을 통해 소통을 구체화하고 개인의 대화 패턴을 인지하여 연습하는 실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법 전달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리자 역량 강화와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 송효석 부회장과 직원들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영진 특강을 진행했는데 부회장이 생각하는 SIMPAC의 청사진과 미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성공, 도전과 실패 사례 및 극복방법, 직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와 소통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부회장의 스토리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생각을 강평할 수 있었다. 또한 부회장이 아닌 송효석이라는 개인으로서 삶, 나의 길, 사회생활, 인간관계,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 직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성공 노하우를 친근감 있게 스토리텔링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차세대 리더들의 역할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인드, 주도적 삶과 주인 의식 등 역량 교육 프로그램으로 팀장의 영향력과 소통으로 단합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회사 발전과 조직 생활에 기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22년도 SIMPAC 신규입사자 사외 집체 교육 실시

2022.10.26 ~ 2022.10.28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50명의 SIMPAC 전 계열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사외교육이 진행되었다. 첫날 같은 조에 배정된 동료들을 알아가는 시간에서부터 조별 단합 활동인 OST 퀴즈와 레크리에이션 및 송효석 부회장과 과의 간담회, 조직간의 소통과 캘리그래피를 배워보는 시간 등 다양한 커리큘럼과 일정으로 SIMPAC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에 대한 이해와 팀별로 단합하는 시간이었다.



SIMPAC 트랜스퍼 프레스 Martinrea International에 납품

2022.06

지난 6월에 SIMPAC 프레스BU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업체인 Martinrea International에 3000톤, 1600톤 프레스를 수주받아 납품한 상태다. 8월 첫째 주에 미국공장에 도착해 현재 DTL4-3000, DTE4-1600을 설치하고 조립 중에 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시운전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 QSS 혁신문화 재도약을 위한 발대식

2022.10.12

QSS(Quick Six Sigma)란, 제품품질 불량률의 표준편차를 6시그마에 가깝게 하여 제품의 불량률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품질 경영 전략이다. “즐겁고 보람 있는 현장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탈BU사업부 QSS 활동이 2014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활성화되었으나,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 가동 등 많은 인원이 변동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다짐으로 이번 공장 혁신과 교육에서부터 활동방향까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QSS 활동 방향을 재정립하여 SIMPAC의 고유한 혁신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QSS 활동 킵오프를 통해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직원 역량 향상과 복지 차원의 자기주도 학습 및 실천을 돕고자 했다. 이번 1공장장을 중심으로 행정부서의 운영진행을 통해 원활한 QSS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며 3정(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My machine(설비 안정화)가 이뤄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2.06 - 2022.10

SIMPAC NEWS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무파쇄 주조설비 준공식

2022.10.07

지난 9월, 포항 페로실리콘 공장에 공정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파쇄 주조기'를 도입했다. 10월에 내부 임직원들과 조촐하게 '무파쇄 주조설비 준공식'을 치렀다. 국내에서 이 설비를 도입한 기업은 SIMPAC 페로실리콘BU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생산지원팀과 생산팀이 무파쇄 주조기 생산 업체를 방문해 꼼꼼이 확인하고 생산업체의 테스트용 설비를 통해 실험 가동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 무파쇄 주조기는 시운전 단계에 있고, 임직원들이 숙련할 때까지 신규 설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에 있다. 국내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 여름에 몰아친 태풍으로 현재의 상황은 어렵지만, 무파쇄 주조기의 도입이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직원들이 말했다.



SIMPAC 메탈BU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포항공장 봉사 동호회 연탄나눔기 행사

2022.10.29

지난 10월 29일,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봉사 동호회 심봉사(심팩봉사단)는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나눔기 행사를 가졌다. 매년 심봉사는 SIMPAC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누고자 지역 봉사단과 함께 지난 8년간 45가구 대상으로 17,100장의 연탄을 기부하며 사랑의 연탄 나눔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사랑의 연탄봉사는 용흥동 일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총 3,000여장의 연탄을 6가구 500장씩 전달하였다.



차세대 ERP 구축 프로젝트 진행 여정

2022.06~2022.12

- 2022.06
2022.06.07 공식 구축 프로젝트 시작
- 06 차세대ERP 구축 프로젝트 T/F 구성 (총 36명)
- 수행사 삼성SDS 프로젝트 팀 구성 (총 26명)
- SIMPAC 그룹 전사 방문 및 전임직원 대상 To-be 프로세스 설명회 진행
 - 전사(여의도/부평/포항/광양) 사업장 방문
 - 변화관리 워크숍 진행
- 2022.07
07 프로젝트 TF 0차소집 및 교육
 - 구축 프로젝트 방법론 및 그룹웨어, 인사시스템, 경비포탈 시스템 소개
 - 각 모듈(업무)별 팀장/팀원 대상으로 P들이 직접 To-be 프로세스 리뷰
 - 변화관리(CPIM) 특강
 - 그룹웨어 프로젝트 Kick-off
- 2022.08
08 프로젝트 TF팀 1차 소집 및 통합테스트 수행
 - 삼성SDS Real Summit 행사에서 중견기업 ERP 구축 관련 SIMPAC 사례가 발표됨
- 2022.09
09 PLM(2023년 예정) 프로젝트를 위한 설명회 진행
 - e-HR(인사관리시스템) 프로젝트 Kick-off
- 2022.10
10 프로젝트 TF팀 2차 소집 및 통합테스트 수행
 - 여의도/부평/포항 거점으로 진행
- 2022.11
11 프로젝트 TF팀 주요인원 여의도 상주 시작
 - 프로젝트 회장님 및 경영진 중간보고 (예정)
 - 제일사료에서 SIMPAC 벤치마킹 수행 (예정)
 - 전사 임직원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작성 (예정)
- 2022.12
12 프로젝트 TF팀 3차 소집 및 통합테스트 수행
 - 여의도/부평/포항 거점으로 진행
 - SIMPAC 그룹 임직원 대상 사용자 교육
- 2023.01
01.02 시스템 오픈 준비

공정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무파쇄 주조기가 안착하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뒤따른다. 설비에 대한 투자도 그 중 하나다. SIMPAC 페로실리콘BU는 공정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파쇄 주조기'를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에 도입, 현재 시운전 중이다. 국내에서 이 설비를 도입한 기업은 페로실리콘BU가 최초이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는 무파쇄 주조기로 No.1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

공정을 단축하는 무파쇄 주조기,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다



지난 9월,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에 신규 설비 '무파쇄 주조기'가 안착했다. 무파쇄 주조기란 주조와 냉각, 파쇄 공정을 단일화한 설비로, 공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페로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 수동 파쇄를 이용했다. 즉, 원료를 혼합하고 용해로에서 용해한 뒤 주조 테크에서 응고와 자연 냉각을 거친 후 파쇄를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생산팀 김건우 매니저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전기로부터 1500℃ 이상의 용탕을 제조한 후 일정한 형태의 몰드에 부어 냉각을 시킵니다. 이후 규격에 맞게 파쇄한 다음 포장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주조 후 냉각까지의 시간 소요가 길어서 작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파쇄 과정에서 미분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재료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무파쇄 주조기는 별도의 파쇄 과정 없이 용탕을 큐브 형태로 주조하여 곧바로 제품 크기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때문에 공정 단축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분진 발생이 없으므로 환경오염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은 지난해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LC) 기술 개발에 돌입했다. 그런데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분 관리와 제품 수율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변화가 필요했다. 이에 생산팀과 생산지원팀은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생산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지원팀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모색했다. 김형준 매니저는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 전 직원들은 국내 유일의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무파쇄 주조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찾았고, 6개월 정도 검토의 시간을 거쳐 설비 도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파쇄 주조기 도입은 고객의 입장에서 무척 반길 희소식이다. 제품에 불순물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무파쇄 주조기는 별도의 파쇄 과정 없이 용탕을 큐브 형태로 주조하여 곧바로 제품 크기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때문에 공정 단축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생산지원팀 김건우 매니저



Productivity



새로운 시도와 끊임없는 도전

페로실리콘BU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



생산 공정상의 적극적 투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가치 향상을 위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정 설비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시너지 나는 팀워크

급변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Challenge

신규 설비 도입으로 현장 만족도를 높인다

생산 시설에 신규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도전과 같다. 기존의 설비와 차질 없이 운용이 되어야 하고 직원들은 설비에 대해 학습하고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김형준 매니저는 “신규 설비 도입에는 부담이 따랐다”며 속내를 고백했다.

“무파쇄 주조기는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 한두 건이 전부였기 때문에 비교 분석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산지원팀과 생산팀이 무파쇄 주조기 생산 업체를 직접 방문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확인했고, 생산 업체의 테스트용 설비를 통해 실험 가능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야말로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현재 무파쇄 주조기는 시운전 단계에 있다. 시운전으로 한 달이 넘는 시점에서 현장의 기대는 크다. 공정 과정 중 냉각수를 넣거나 기존보다 전력이 좀 더 소비되는 단점도 있으나 단점을 상쇄하는 장점이 더욱 크기에 작업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긴장의 끈도 놓지 않고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전기로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설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력이 담보돼야 합니다. 때문에 설비에 대한 이해,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면 향후에는 무파쇄 주조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신규 설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련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무파쇄 주조기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설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상황은 어렵지만,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페로실리콘BU의 지속 성장은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생산지원팀 김형준 매니저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LC) 개발과 양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에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 내부적으로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더 힘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생산지원팀 김건우 매니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힘찬 전진!



입사하고 어느덧 2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성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와 저의 성장을 위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기 설비에 대해 더 학습하고 더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생산지원팀 최형철 매니저

Sustainable Innovation

SIMPAC그룹이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을 인수한 2019년 11월 이후, 페로실리콘BU는 작업 공정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왔다. 덕분에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합금철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다. 전기 자동차 모터의 철심 재료로 쓰이는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LC) 개발은 지속적인 혁신의 결과물이다. 김건우 매니저는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 직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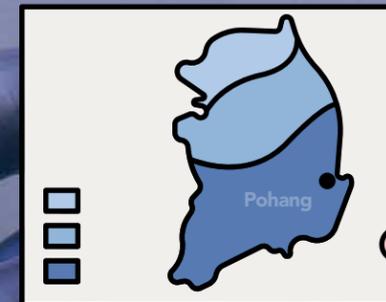
“지난해 후반부터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LC)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올 1분기는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국내외 환경으로 성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지난 여름 몰아친 태풍 때문에 적신회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LC)으로 힘찬 도약을 기대했던 직원들이 모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파쇄 주조기의 도입이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돼 줄 거라 믿습니다.”

입사한 지 2년이 넘는 최형철 매니저는 근무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전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한여름, 현장에서 직원들과 근무하면서 끈끈한 동료애와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위, 열기와 싸워야 하는 현장은 마치 사막과 같았지만,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의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서도 페로실리콘BU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저 또한 그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형철 매니저의 각오에 김형준 매니저와 김건우 매니저는 엄지를 세웠다. 페로실리콘BU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세 사람의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역대급 태풍에도 굳건했던 SIMPAC

비상 대처 능력이 빛났던 순간



지난 9월 6일 새벽, 힌남노 태풍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를 뿌리며 포항을 관통했다. 이에 포항 공단지역에는 태풍 피해가 속출했고, 배수와 철거 작업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조업을 한 달가량 중단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다행히도 SIMPAC 포항1공장은 힌남노 북상 이전부터 대비 태세를 갖추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철저했던 대비책, 유연했던 대처법

한남노 북상 소식이 전해진 뒤, 포항공장에서는 태풍 경로에 따른 여파를 시나리오별로 예측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강수와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리 정돈을 해두고, 원료가 입고되거나 제품을 출하하는 시기도 조정해두었다.

한편 현장에서도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황별 신속 대응을 위해 부서마다 한 명씩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비상 연락망을 살펴봄과 비상시 보고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전력 투입이나 출탕 시간을 조정하고, 단전 시행에 대한 준비도 마쳤으며 주요 설비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한남노 태풍이 다가왔다. 당시 포항에서는 4시간 동안 내린 비가 400mm가 넘었고, 공단 주변 하천이 모두 범람하며 공단을 덮쳤다. 이에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한 공장 내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직원들은 새벽 1시에 공장 내 침수가 시작된 것을 인지하고 바로 비상 태세를 갖췄다. 새벽 3시부터는 수전변전소와 전기실에서 침수가 조금씩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전기실이 가장 문제였다. 전기로가 켜진 상태에서 침수가 이루어지면 끔찍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때 전기실 이경호 반장은 전기실을 지켜내기 위해 당직 직원들에게 SOS를 요청했다.



“전기실에 조금씩 물이 차기 시작하자 모든 당직자분에게 연락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와서 방파제를 쌓아 물길을 돌려주고,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전기실 안에 있는 물을 빼주었어요. 그럼에도 물이 계속 유입되어 30여 분 뒤에는 메인 전원도 차단했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서 보행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섯 명의 직원은 비바람을 맞으며 페이로드 위로 이동하면서 정전된 공장 내에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경영지원팀 전준호 매니저는 공장 전체를 꼼꼼히 돌아보며 주요 시설이 침수되지 않는지 확인했다. 이경호 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직 직원 모두가 전우애를 느꼈던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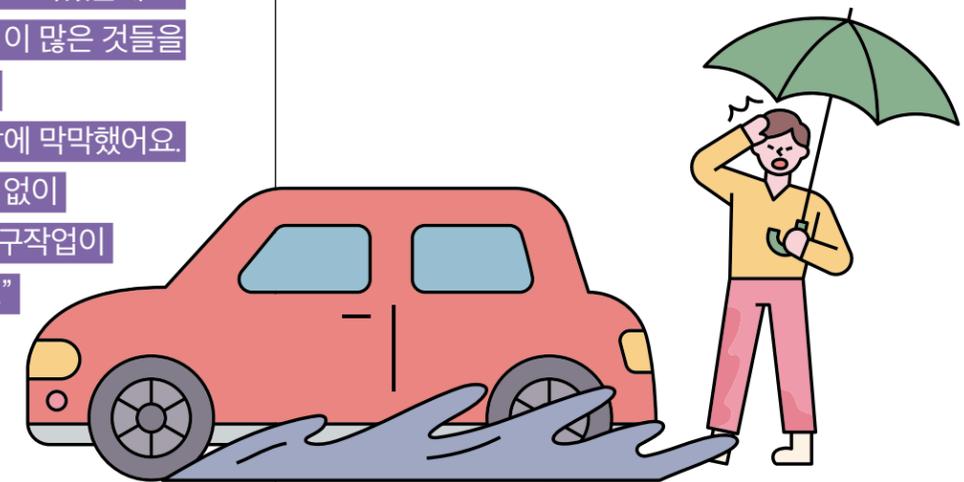
한편 전기실 이경호 반장의 사수인 백선일 주임은 전기실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차를 몰고 공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많은 비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면서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웠고, 백선일 주임은 주차한 뒤, 2km를 걸어와 공장에서 와서 침수 정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주차해두었던 차는 결국 폐차할 수밖에 없었다.



전 직원의 노력으로 빨라진 복구 단계

아침이 밝고 난 뒤에도 공장 전체가 약 1m 침수된 상황에서 공장 주변으로는 차량 이동이 아예 불가능했고, 전 직원 출근 시간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새벽잠을 설치고 아침 일찍 출발한 경영지원2팀 조솔범 매니저는 오전 10시쯤이 되어서야 공장에 도착했다. 도착해서 살펴본 공장의 상태는 처참했다.

“아침 8시까지 출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바로 앞 다리부터는 아예 도로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10시쯤 되어서야 공장에 도착했는데요. 복구작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철거하고, 언제쯤에야 정상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그런데 현장이나 사무실 구분 없이 모든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복구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이후 본격적으로 태풍 피해 복구계획이 수립되었고, 전 직원이 공장 정상화를 위해 배수 작업과 철거 작업을 시작해 나가자 생각보다는 금세 정리되어갔다. 포항2공장과 페로실리콘공장에서는 양수기 등 복구를 위한 물품을 지원해주었고, 인력이 귀한 상황에서 직원들 모두가 포항1공장으로 달려와 내 일처럼 일해주었다. 물론 포항1공장 직원들도 추석 4일을 모두 반납하며 복구 작업에 열중했다.

또한 식당 철거 작업도 골치 아팠다. 식당 안에 있던 음식물이 물에 잠기며 악취가 나기 시작했지만, 직원들 모두 군말 없이 배수 후 철거 작업에 헌신해주었고, 곧 식당은 새 단장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집진기 인버터 역시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하루 뒤 오후에는 전기가 재투입되었다. 이는 포항 내 타 공장에서 전기 재투입만 하는데 4~5일이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였음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수습이었다. 새벽 당직 직원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전기가 빠르게 투입되면서 복구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물론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지나간 뒤, 그 여파는 작지 않았다. 분석기기 및 시약을 유실하고, 1층 사무동과 원료 배합동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컸고, 이후 10일간 조업은 중단되었으며 설비 복구 이후에야 저부하 조업부터 실시할 수 있었다. 분석 장비(XRF) 수리 또는 교체 예정에 있으며 분석실은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내에 정상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직원들은 식당 침수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포항 산업단지 내 복구인력이 투입되면서 도시락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대구까지 가서 공급해 오기도 했다. 그나마 포항 1공장에서는 업체를 빠르게 섭외해 밥차 형태로 식사를 받고, 당분간 강당을 식사 장소로 사용하기로 했다. 식당의 인테리어와 공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식당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작업중에 있다.

한남노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강판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고순도 FeSi 납품이 불가능해졌으며 스테인리스 미생산으로 300계 더스트 임가공 물량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객사로 가야 할 Mn 합금철 납품 역시 불가능해지면서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박종환 상무는 "SIMPAC에서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유례없는 공장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이렇게 예상치 못한 강수로 인한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관협력으로 공장 주변의 하천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장 내부에서는 침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식당, 변압기, 전기시설 등의 주요 설비의 방수와 사전 단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한남노 태풍이 공장을 덮친 뒤, SIMPAC은 열흘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조업하며 포항 공단 내에서 어떤 공장보다도 먼저 정상화되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태풍 복상 전부터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한 준비성과 비상 상황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른 유연성, 그리고 복구작업을 위해 헌신한 전 직원의 노력이 있었다.

재해에도

그떡없던

우리의 팀워크!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 박종환 상무

가장 먼저 헌신적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준 당직 근무자에 감사드립니다. 피해 복구의 과정에서 동료 간의 배려, 애사심을 갖게 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바로 우리 직원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IMPAC 메탈BU 경영지원2팀 조승범 매니저

당직 직원분들이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해주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로 복구작업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복구에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포항1공장 복구를 위해 자기 일처럼 애써주신 포항2공장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SIMPAC 메탈BU 전기실 이경호 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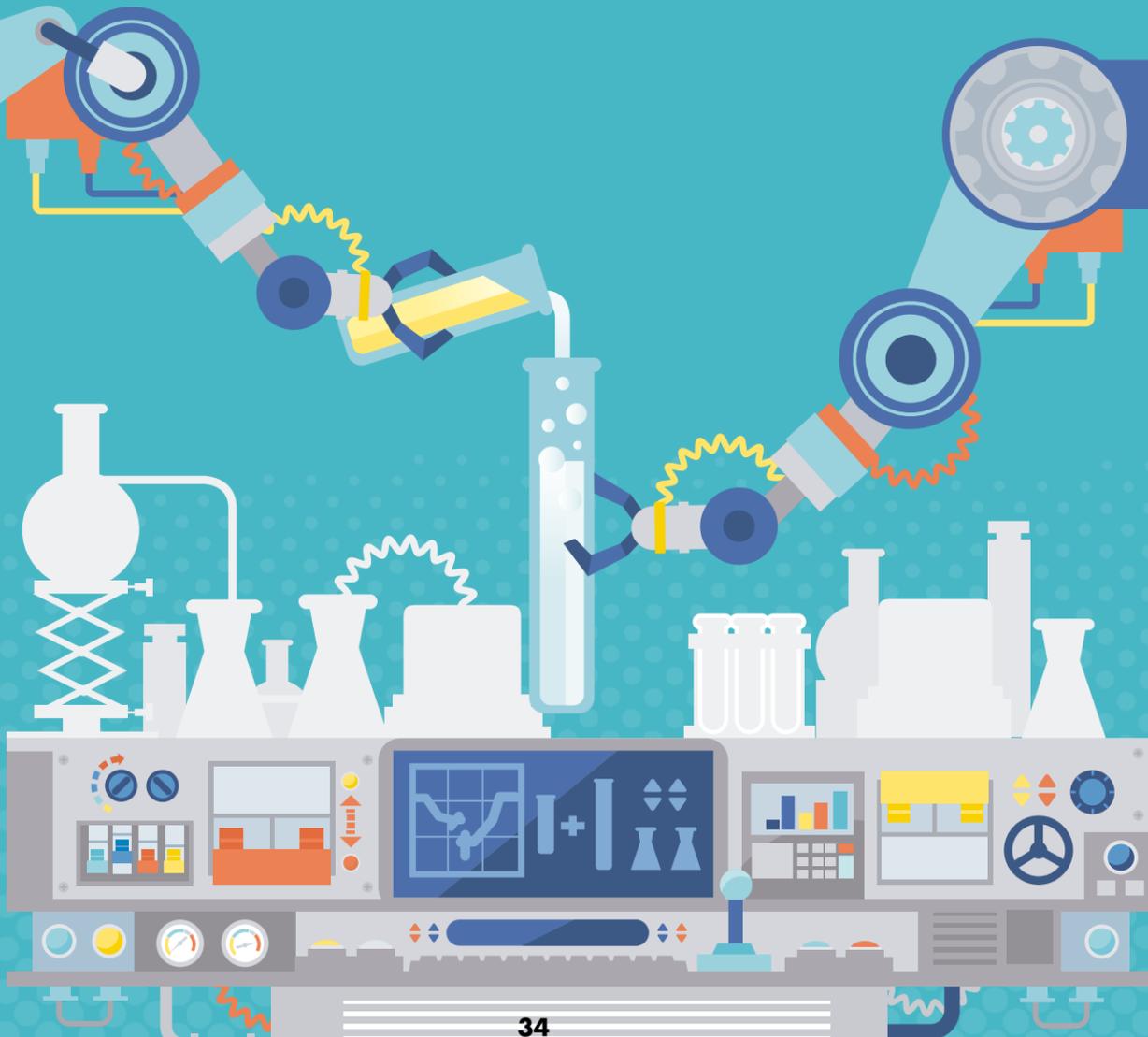
전기 직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도 주시고 전 직원분들이 칭찬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같이 애써준 당직 직원들, 다음날부터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전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다

모두와 함께 외친 유레카!

리스텍비즈에 들어선 순간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 사이로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광양공장의 규모는 작지만 서른 명 남짓 직원들의 에너지로 꽉 채워져 현장은 더욱 생기가 넘친다. 리스텍비즈는 SC-3 산화아연, SC-4 염화아연 제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제품군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숨은 주역인 생산팀의 김관빈 팀장과 윤현준 대리. 특히나 끈끈한 '애정'을 과시하는 이 두 직원의 유쾌한 수다를 통해 리스텍비즈의 도전과 성공의 비결을 알아보자.



제품 개발의 숨은 주역은 '우리 모두'

2018년 10월 리스텍비즈와 SIMPAC이 한 식구가 되면서 도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제품군 다변화'였다. 포화 상태의 산화아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로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SIMPAC으로 편입되기 전 리스텍비즈의 주 생산품은 습식 제조 공법을 거친 SC-1과 SC-2 산화아연 분말이다. SC-3 제품은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당시 기술력 문제와 특정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찾지 못해 중단된 아이템이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던 SC-3 제품이 SIMPAC의 대대적인 설비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2019년에 다시 개발에 착수한다. 과거의 데이터를 되짚어보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약품 찾기'에 매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SIMPAC 송효석 부회장이 넉넉히 알려준 정보가 결정적이었다. 김관빈 팀장은 SC-3 제품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던 단추는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부회장님의 소스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하며 당시를 회상했다. "원하는 불순물만 제거하기 위해 그에 맞는 여러 약품을 넣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회장이 알려주신 약품으로 해봤는데,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를 시작으로 제품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SC-3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에는 액체 형태의 SC-4 염화아연을 상품화하여 납품에 성공한다. 염화아연 또한 예전부터 준비는 되어있었지만, 금액 면에서 수익성이 맞지 않아 추진하지 않던 아이템이었다. 그러던 중 영업팀에서 업체 측과 조율하며 품질 면에서 가격 면에서 타사 제품보다 경쟁력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판로를 마련해 준 것이다.

김관빈 팀장과 윤현준 대리는 제품 개발을 성공시키기까지의 숨은 주역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유관 부서와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팀원들 간의 시너지가 없었더라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 모든 성과의 숨은 주역은 '우리 모두'라고 몇 번이고 강조했다.



산화아연 SC-3 grade



- 65~75% 아연순도를 가진 제품
- 2020년, 1,000톤 생산
- 2021년, 2,000톤 생산 및 정기적인 납품



염화아연 SC-4 grade



- 인산염과 병용하여 부식 방지 피막 형성 및 부식억제 효과로 수처리 설비의 부식 방지제로 사용



품질을 향상시키며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리스텍비즈 생산팀
김관빈 팀장

각오와 목표

현재 리스텍비즈 2공장을 준비하면서 SC-3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클러스터 사업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이 스마트화되면 제품 품질도 올라가고 작업 효율도 높아져 생산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품 개발에 완벽한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품질을 개선해 나가며 최적의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품질은 충분히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량 모두 재고없이 납품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고 있을 정도입니다.

품질 면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윤현준 대리가 매일같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제품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웃음) 테스트를 위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건의 하면서 현장의 지원사격을 요청하기도 하고, 저의 역할은 이런 팀워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 직원들과 아침에 회의를 시작해 그날 바로 모든 공정을 '한큐'에 진행해버립니다. 굉장히 피드백이 빠르죠. 이처럼 결과를 빨리 공유 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있나요? 제품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제조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라면 빠른 시간안에 이 목표를 함께 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품질을 올리고 가격은 낮추고' 리스텍비즈만의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리스텍비즈 생산팀
윤현준 대리

각오와 목표

지금은 SC-1 제품의 입자 크기 개선을 위해 '그레놀' 공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흐름성을 향상시키면서 액체에도 잘 녹는 환 형태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밖에도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제품을 개선·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리스텍비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질 향상의
열심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죠!

SC-3 산화아연과 SC-4 염화아연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제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SC-3 산화아연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SC-4 염화아연은 개발이 비교적 수월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고객사에 납품한 염화아연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해버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전량 회수 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하여 테스트를 감행한 결과, 해결책을 찾아 다행히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테스트 진행하다 보면 생각치 못한 곳에서 원하는 결과로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팀원들과 함께 환호를 지르며 기뻐하죠. 그리고 실험실에서의 결과보다 현장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오히려 더 좋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 궁금증도 많아지고 이런 방법은 어떨지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그중에는 솔직히 쓸모없는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팀원들은 귀찮은 내색없이 모두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부분이 참 감사해요.

원인 분석부터 개선 방안 그리고 해결책까지. 저 혼자서 아닌 모두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리스텍비즈의 '히든피겨스'는 사실 우리 팀 전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협업만큼 확실한 성장의 부스터는 없으니까요.



SIMPAC 프레스와 더불어 성장하는 정진멀티테크놀로지

기술력을 자산으로 튼튼하고 독보적인 기업을 만들어간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국내 멀티포밍(Multiforming) 업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의 최대 강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얻은 탄탄한 기술력! 덕분에 내로라하는 고객사들의 만족과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업계의 선두 자리에 서 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SIMPAC 프레스와의 멋진 파트너십이 존재한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밀부품의 완성도 기술력으로 승부!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멀티포밍 설비로 전기, 전자, 휴대폰, 자동차 및 각종 정밀 부품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1992년 설립되었다. 멀티포밍(Multiforming)이란, 프레스와 코일스프링의 장점을 살려 개발된 공법으로, 원하는 형상과 높은 생산성으로 가공이 가능한 금속 성형법을 말한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 연구소의 정찬수 부장이 회사 소개를 이어갔다.

“우리 회사만의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면서 기술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도전의 과정에서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성공 경험이 훨씬 많았습니다. 덕분에 직원들 모두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클립과 클램프, 모터케이스, 릴레이 스프링 등 자동차의 엔진이나 모터 등에 들어가는 소형 정밀 부품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력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이를 통해 단가가 높은 원재료를 한번에 정밀하게 세공하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난이도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제조설비기능은 세계 선진기업의 기술력과 견줄 만하다. 아울러 2016년에는 기술정보 데이터와 주문 내역에 관련된 스마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술력이 정진멀티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덕분에 고객사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밀 부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품 가공 공정과 동시에 탭핑(Tapping)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공비를 절감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입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생각의 자유’, ‘소재의 자유’, ‘형태의 자유’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왔다. 덕분에 2007년에는 한국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클린 사업장’으로 인정받았고, 2019년에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수상과 비전기업 인증 등의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SIMPAC 프레스와의 만남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의 또 다른 날개를 달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춰 10년 전 프레스 사업부를 신설하고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해왔다. 정찬수 부장은 “치열한 시장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버스바(Busbar-전기차용 케이블)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버스바의 개발 및 생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멀티포밍 설비로는 버스바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IMPAC 프레스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SIMPAC은 프레스 생산 국내 1위 기업으로 고민 없이 믿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버스바(Busbar) 제품은 펀치 및 커팅에서 정밀가공의 품질을 요구합니다. 그 제품에 맞는 프레스를 SIMPAC의 남민국 매니저와 함께 검토하여 SIMPAC 스크치요크 방식의 너클모션 링크 프레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타사와 달리 스트로크 및 유지보수에 SIMPAC 링크 프레스가 강점으로 인식되어 사용 중이며 현재까지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2010년 SIMPAC 프레스 설비를 첫 도입했다. 현재 ‘CS-65’, ‘MCL1-200’, ‘ECS-110’, ‘ECS-110’, ‘MCL1-110’, ‘MCL1-200’, ‘MCL1-150’의 일곱 대의 SIMPAC 프레스가 힘차게 가동하고 있다.

정찬수 부장은 SIMPAC의 장점으로 작업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한 ‘높은 정밀도’,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최첨단 설비’,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짚고 문제를 해결하는 ‘뛰어난 소통력’을 꼽았다. 그가 기억에 남는 일화를 소개했다.

“지난해 프레스를 새로 계약했습니다. 남민국 매니저님이 프레스가 들어오는 과정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프레스를 설치할 가장 좋은 위치, 개정된 법규에 따라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평소에는 국가 시책이나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 신속한 AS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여름휴가 시즌에 급하게 AS를 요청했는데, 바로 서비스가 진행돼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와 SIMPAC 프레스가 지척에 있어서 자주 볼 수 있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서비스 대응도 매우 빠릅니다.”

정찬수 부장의 말에 남민국 매니저가 환하게 웃었다. 남민국 매니저는 “두 회사의 관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끈끈한 파트너십이 존재한다”며 엄지를 세웠다.

기술력 높이는 변화와 혁신, 도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대기업만큼의 직원 복지를 따라가기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직원들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즐겁고 강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임직원 간의 활발한 소통과 열린 대화는 정진멀티테크놀로지의 자랑할 만한 조직문화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의 또 다른 장점은 특히 젊은 분위기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30세 미만으로, 현장은 항상 에너지로 넘친다. 이는 여타 제조 기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맞춤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력 확보를 위해 시작했는데, 타 회사들의 모범사례가 되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현장교육 시범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우수기업 교육부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시스템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의 경영 방침은 ‘고객만족 활동’, ‘기술개발의 혁신’, ‘기본품질의 집중’이다. 여기에는 최고 품질을 지향함으로써 고객사에 니즈에 부합할 뿐 아니라 최고의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아울러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정찬수 부장은 “때문에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이를 위한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정진멀티테크놀로지는 앞으로 프레스 사업부를 점차 확대하여 자동차 부품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찬수 부장은 “SIMPAC 프레스와 함께하기에 든든하다”며 밝게 웃었다. SIMPAC 프레스와 함께 더욱 승승장구하는 정진멀티테크놀로지의 밝은 내일을 기대한다.



SIMPAC 프레스BU 영업팀
남민국 매니저



정진멀티테크놀로지
정찬수 부장

SIMPAC의 희망찬 미래,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으로 열어갑니다!

2022년도 SIMPAC그룹 신규 입사자 사외 집체교육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50명의 SIMPAC 전 계열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사외 교육이 진행되었다. 패기 넘치고 열정 가득한 신입사원들을 통해 SIMPAC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던 시간!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Day 1.

SIMPAC과 우리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신입사원 사외 교육 첫날은 같은 조에 배정된 동료들에 대해 알아가고, 조장을 선출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전국의 계열사에서 모인 50명의 신입사원들은 동료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했고, SIMPAC의 일원이자 같은 조원이라는 동질감에 금세 하나된 분위기로 뽀짝 뽀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는 '신입사원의 역할 인식'이라는 주제로 'SIMPAC 조직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사원들은 조직의 구성원이 돼 변화한 요소를 하나씩 선정해 동료들과 공유하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SIMPAC이 원하는 신입사원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Day 2.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SIMPAC! 더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민하다

둘째 날에는 조별 단합 액티비티 활동인 '너와 나,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으로 막이 올랐다. OST 퀴즈와 레크리에이션으로 몸풀기를 한 신입사원들은 윗놀이 미션을 통해 서로 간의 소통과 협업 과정을 거치며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이후에는 송효석 부회장과 장남희 부회장의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심팩의 미래'라는 주제로, 'SIMPAC이 세계로 더 뻗어나가기 위해 생각해야 할 요소'에 대해 조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사원들은 '교육 프로세스 확립을 통해 직무 몰입도를 높이는 법', '조직문화 개선, 소통 및 교육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 'MZ세대와 선배 세대 간의 세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협업 방안', '임직원 스스로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동기 부여법' 등 심팩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냈다.

SIMPAC홀딩스 합금철구매팀 손주은 사원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이뤄나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며 주제 발표 시간을 인상 깊게 생각했다.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정한솔 매니저는 "송효석 부회장님과 함께했던 간담회가 상당히 인상깊었다. 신입사원의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씀, 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으로 도전하라는 말씀, 혹여 실수해도 걱정하지 말고 실수를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라는 말씀을 듣고 SIMPAC에서의 비전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며 자신의 소감을 전했다.

'심팩의 가치 이해'라는 교육 시간에는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고객 가치 경영', 우리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생각해보고 포드, 디즈니, 월마트, 도요타 등 50년 이상 지속한 기업의 사례들을 통해 '현업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의 가치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오피스 요가와 마음챙김 명상 등을 해보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웠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생산팀 최진욱 사원은 "각각의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동료를 한자리에서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흥미로웠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SIMPAC의 일원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금방 가까워지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다"라며 첫날 교육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리스텍비즈 안전팀 박지윤 사원은 "7월 입사 후 리스텍비즈 외에 동료분들을 처음 보았다. 각자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Day 3.

SIMPAC과 함께하는 청사진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의 내일을 위해!'

교육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어려운 소통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서로 간의 입장과 역할에 의해 마주할 수 있는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조직 내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마인드셋(Mind-SET)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여러 사례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마지막 시간은 캘리그래피로 자신의 비전을 써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신입사원들은 직접 캘리그래피를 배워보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비전에 대해 써보았다.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글자를 써 내려가는 신입사원들의 얼굴은 마냥 진지했다. 그리고 이들의 굳센 각오와 힘찬 포부 속에서 SIMPAC의 희망찬 미래도 그려졌다.



Mini Interview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정환승 매니저

SIMPAC 입사 전에 타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SIMPAC 프레스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SIMPAC이 국내 최고의 프레스 제조 기업이며,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IMPAC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SIMPAC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가치를 드높이고 싶습니다. 국내외 고객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SIMPAC, 고객사 그리고 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생산팀 박지윤 매니저

SIMPAC은 제 전공인 환경공학을 심분 발휘해 일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SIMPAC의 생산 공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포항1공장, 당진공장 등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빠른 시간 내에 SIMPAC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직에 잘 녹아들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제 장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스텍비즈 안전팀 박지윤 사원

신입사원 시기는 회사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무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SIMPAC과 리스텍비즈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항상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더 멋진 박지윤으로 성장하겠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품질지원팀 공진영 매니저

품질지원팀에서 근무하려면 활발하고 원활한 소통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관 부서 담당자, 현장 담당자, 외부 협력업체 담당자 등과 품질에 관한 이슈로 토의나 토론을 통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친화력과 성실함을 무기로 품질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SIMPAC 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를 견인해가는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SIMPAC 메탈BU 생산팀 허지호 매니저

저는 한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할 때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정확한 데이터와 빠른 판단력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는 어떤 일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 생산 전문 엔지니어로 성장해 SIMPAC의 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SIMPAC홀딩스 합금철구매팀 손주은 사원

SIMPAC 홀딩스의 구매 품목에 대해 100%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향후에는 제 이름 석 자 앞에 '구매 분야의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계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입사원이라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님들이나 동기들과 함께하며 익히고 배워나가는 성실한 신입사원의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성과와 만족을 좌우하는 직장 내 인간관계

슬기로운 직장생활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직장 내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않으면 업무를 진행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 만족과 성과를 더하는 원만한 인간관계의 비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겸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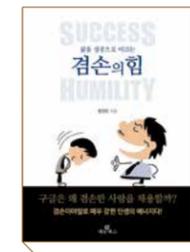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능력과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란 상당히 힘든데요.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덕목이 있으니, 바로 '겸손'입니다. 미국 브리검 영대학교 매리엇경영대학원의 브래들리 오웬스 교수 연구진은 '표현된 겸손성(Expressed humility)'이 팀워크와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겸손한 태도를 갖춘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더 좋은 업무 성과를 거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들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겸손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자석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연구진이 굳이 겸손성 앞에 '표현된'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이유입니다.



겸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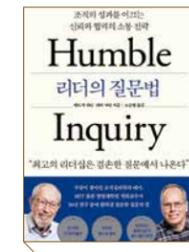
- ❶ 일에 대한 상대방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 ❷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세요.
- ❸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때때로 칭찬하세요.
- ❹ 다른 사람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우려는 의지를 내비치세요.

BOOK 추천 도서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겸손의 힘」
방진민 지음, 제논북스

겸손이 지닌 거대한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조명한 책



「리더의 질문법」
애드거 샤인·피터 샤인 지음, 심심

겸손한 질문으로 일구는 최고의 리더십

2 존중하면 행복해지는 직장생활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인간은 총 5단계의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본능적으로 상위 욕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인데요. 이에 따르면 인간은 1단계인 생리적 요구와 2단계인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3·4 단계인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를 추구하며,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로 향합니다. 이는 직장의 본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잡으면 의식주와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습니다. 나아가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타인으로부터의 존중도 얻을 수 있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개개인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면, 존중의 욕구는 동료들 통해 이뤄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존중받는다는 것을 실감하면 주어진 일이 힘들더라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끈끈한 인간관계와 직장생활의 행복이 자라나는 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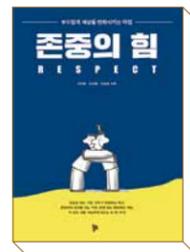
존중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

- ❶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세요.
- ❷ 상대방의 성향과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세요.
- 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전달하세요.
- ❹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무조건적인 명령보다 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시키세요.

BOOK 추천 도서



「존중의 대화법」
강경희 지음, 한스미디어
부하 직원을 존중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59가지 대화의 기술



「존중의 힘」
김찬배·강성룡·이승철 지음, 울림
존중은 모든 문제를 풀어 줄 '만능열쇠'

3 '진짜 나'에 대해 알아보자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나 외부에서 문제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면 인간관계로 인해 불거지는 문제의 상당수가 해결됩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크게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조언과 지적을 자기계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에 앞서 나 자신과의 내면적 인간관계를 먼저 잘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자극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 안의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보세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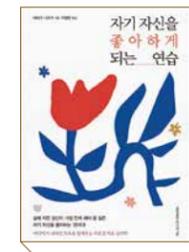
나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방법

- ❶ 노트에 자신의 장단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등을 정리해 보세요.
- ❷ 명상, 요가 등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세요.
- ❸ 나에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분석하세요.
- ❹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BOOK 추천 도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여도 괜찮아」
정은임 지음, 메이트북스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연습」
야하기 나오키 지음, 홍익출판미디어그룹
바닥까지 내려간 의욕을 일깨우는 자존감 심리 치유

건강한 조직문화의 시작, ‘소통’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려면 소통이 중요한 범위를 차지한다. 건강한 소통은 상호간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이끌어내며, 신뢰와 믿음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소통은 좋은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모든 기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01

혼자서는 소통할 수 없다

구글 초창기 멤버이자, 구글의 성장을 견인했던 메리사 메이어 (Marissa Mayer)는 구글의 강점 중 열린 소통을 야후라는 조직에 적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의 문제였다. 메이어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무조건 주입시키는 일방적인 소통으로 접근했고, 내부통제로 직원들로부터 불만과 불신으로 소통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SIMPAC인들은 조직 내 개인의 소통과 태도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을까? 이번 설문 중, “나는 회의할 때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편이다”에서 59%가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나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편이다’에서 47%가 ‘매우 그렇다’고 답하면서 개인으로서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조직 내의 소통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02

건강한 소통이란

대부분 회사에서 팀 구성원들이 일하는 시간의 70%를 커뮤니케이션에 쓴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조직 내 건강한 소통은 조직 전반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는 ‘팀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둘째는 서로의 고충과 감정을 공유하여 유대감으로 신뢰와 믿음의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정보 활성화가 잘 되는 이점이 있다.

SIMPAC인들은 조직의 소통 문화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조직은 공식/비공식적인 소통의 통로가 다양한 편이다’에서 ‘보통이다’가 41% ‘우리 조직은 제안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편이다.’ 53% 인 것으로 확인되어 변화하는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건강한 소통 문화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졌다.



03

건강한 소통을 위한 최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부분 소통에서 오는 문제일 수 있다. 조직 내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서로가 느끼는 고충과 감정을 공유해 자연스럽게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연대감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누구나 감정을 표출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상호작용의 욕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건강한 소통은 이러한 잠재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신뢰와 믿음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SIMPAC인들은 소통문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9월부터 5일간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진행: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설문진행

기간: 2022.09.26~2022.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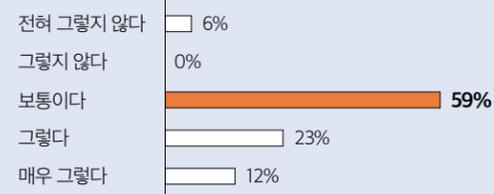
참여: SIMPAC홀딩스, SIMPAC, SIMPAC인더스트리, 리스텍비즈 등
SIMPAC그룹 전 계열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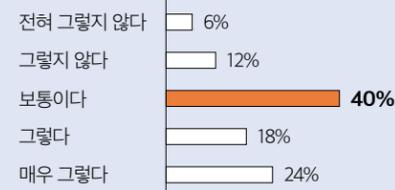
Q.

조직 내 개인의 소통과 태도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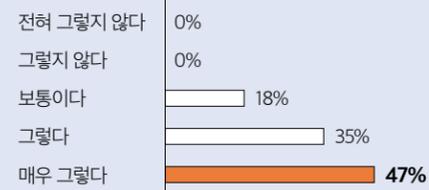
01 나는 회의할 때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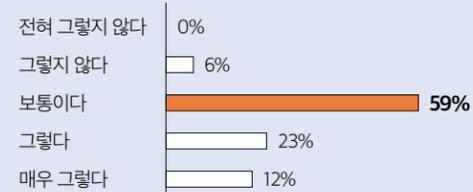
02 나는 상사에게 업무적인 고민을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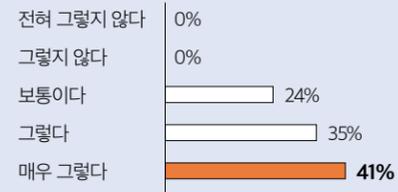
03 나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편이다.



04 나의 업무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도하는 편이다.



05 나는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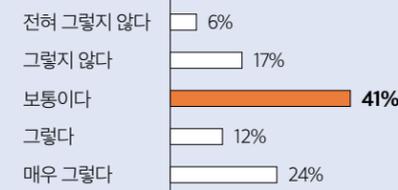
Q.

조직의 소통문화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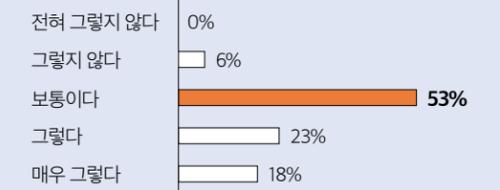
06 우리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서로 간에 동기를 부여한다.



07 우리 조직은 공식/비공식적인 소통의 통로가
다양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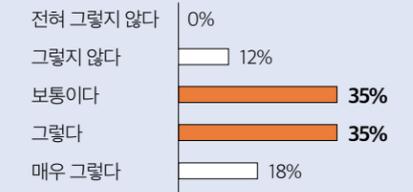
08 우리 조직은 제안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편이다.



09 우리 조직은 업무 수행에 있어 팀원간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10 우리 조직은 서로 경청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11 건강한 소통과 조직문화에 대한 심팩인들의 다양한 의견

소통 활성화를 위한
모임과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서로 성향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동료들과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소통 강화를 위해 개인별,
팀별 방법들을 조금씩 찾아서 변화하는
심팩 조직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회의 시간
단축, 자율적인 소통문화를 통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소통 문화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직급에 무관하게
편한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통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업계 특성상 위계질서가 필요하나,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며,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일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조직
차원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이 코너는 임직원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력스타그램

Cooperation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협력'을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 생산팀
정용환 매니저



협력이란,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
협력을 통해 팀워크 향상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포항1공장 집전반입니다.

#나에게 협력이란 #타인을 위한 배품
#팀워크 #유대감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 경영지원2팀
조술범 매니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불우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며 소통하는 자세로 함께 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협력이란 #상생 #공생
#불우이웃 돕기 #한끼 봉사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이현아 사원



함께 정리하며 즐기는 맛있는 빵

#라운지 #빵맛집 #협력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차지수 사원



친구랑 열심히 같이 응원하면서
봤던 경기! 행복한 주말

#친구 #응원 #야구 #힐링 #같이

리스텍비즈 안전팀
박지윤 사원



함께 한 회식자리, 리스텍비즈 화이팅입니다!

#즐거운 회식 #함께 #협력 #화이팅!



우리들의 이야기

결혼을 축하합니다



SIMPAC 프레스BU 해외영업팀 이지호 매니저
SIMPAC홀딩스 합금철구매팀 김예원 대리

SIMPAC에서 맺어진 아름답고 소중한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을 서로 아끼고, 섬기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동료, 선배분들께서 아낌없이 응원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SIMPAC 프레스BU 프레스사업부 회계팀 나우정 매니저

8년 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했습니다.

첫돌을 축하합니다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 생산지원팀 최규석 매니저

사랑하는 은유야,
지금처럼 건강하게 웃으면서 자라주길 바래.
우리 딸 첫돌 축하해.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SIMPAC Group



SIMPAC 홀딩스

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SIMPAC 프레스BU

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
· 기계식, 유압식, 서보 프레스 생산



SIMPAC 메탈BU

국내 Top-tier 합금철 메이커
· 페로망간 및 실리코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



SIMPAC 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



SIMPAC 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
·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리스텍비즈

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



연속 작업으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 동기화 프레스

동기화 PRESS 설비사양

- 라인 구성 : CXS-300 x 1 / CXS-250 x 5
- 라인스피드 : 18~20/min (연속 조건 사용)
- 스트로크 : 330~350mm
- S.P.M : 벡터모터(16~23)
- 자동화 : 단동 ROBOT
- 전기제어 : AB PLC+Touch
- 클러치 : 내장형 습식 C/B
- 급유방식 : 세미 순차분배변
- 기브 : WIDE 6면 기브



생산성 증대

- 70~80% 생산성 향상
- 분당 약 18~20개 생산
- 기존 제품 대비 영업 이익 10% 이상 예상



동기화 기술

- 동기화 프레스의 핵심 기술인 벡터 모터 사용
- 다관절 생산 라인을 동기화하는 것이 목표



신규 시장 창출

- 기존 제품의 20% 대체 가능
- 1년에 약 30라인, 180여대의 신규 수요 발생